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년부터 '38년까지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자원안보, 도입·수급관리 및 인프라 확충계획을 포함한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수요전망, 시설계획)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전망

총 천연가스 수요(기준수요)는 '26년 4,591만 톤에서 '38년 4,100만 톤으로 연평균 0.9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용 수요는 '26년 2,356만 톤에서 '38년 2,816만 톤(연평균 1.50% 증가)으로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월)의 전원구성 등을 기반으로 할 때 '26년 2,235만 톤에서 '38년 1,284만 톤(연평균 4.51% 감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이어 '수급관리수요'를 별도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천연가스 수요(수급관리수요)는 '26년 4,762만 톤에서 '38년 4,767만 톤(연평균 0.01% 증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관리수요'는 필요시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 및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 변동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발표할 계획이다.

자원안보 및 도입·수급관리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천연가스 비축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공공 중심의 비축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규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도입·재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AI 기반 위기 예측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천연가스 생산국 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등에 따른 현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가격지수의 급등이 곧바로 도입단가 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가, 가스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급 인프라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기지 저장탱크의 증설 등 '38년까지 최대 887만 톤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등을 위해 564km의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공급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해 경제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관 수급지점을 개설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232)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4-203-5237)